

# 소설 속 여성과의 조우

- 장시광, 『한국고전소설과 여성인물』, 보고사, 2006

최 윤 희\*

## 1.

연구서는 오랜 연구 과정을 통해 축적된 연구자의 내공이 집약된 산물이다. 연구자는 연구서를 출판함으로써 여기저기 흩어진 자신의 연구 결과를 갈무리하여 연구를 심화하는 계기를 삼기도 하고, 다른 연구자로 하여금 유관한 연구를 진작시키기도 한다. 오랜 기간 ‘고전소설’과 문학 속 ‘여성’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저자는 이와 관련한 10편 이상의 논문을 연속적으로 발표한 바 있고, 박사학위논문에서 대하소설의 여성반동인물에 대해 다루기까지 ‘고전소설의 여성 연구’에 대한 일련의 연구를 해왔다. 『한국 고전소설과 여성인물』 역시 그간 저자가 기 발표한 논문들을 다듬어 묶은 저서이다.

저자는 서문에서 이 책의 목적과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저자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먼저 텍스트 해석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였다. 여성인물은 여성 독자의 심리적 대리물 내지 반영물로서, 텍스트 밖의 여성과 텍스트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인물일 수 있다는 가설 하에 연구를 진척시켰다.

---

\* 경희대 교양학부 전임강사

이 책은 두 가지의 연구 방법론이 교직된다. 텍스트 해석학적인 관점에서 연구와 소설 인물 연구가 그것이다. 고전소설은 당대를 살아간 사람들의 삶의 실체를 그리므로 그 안에서 인간의 다채로운 모습과 삶의 굴곡을 발견할 수 있다. 이를 찾아내는 것은 텍스트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뒤따를 때 가능하다. 또한 인물 연구는 다양한 인물 군상들의 모습을 포착하기에 유효한 방법론일 수 있다. 이러한 연구방법론을 적용하기 위해서 연구자는 작품에 천착하고 텍스트에 대한 정당한 분석 결과를 도출해야 하는 소명을 가져야 한다.

이 책은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문학 작품 안에서 여성은 간과되어 은닉되거나 사라지는 인물로 그려지기 일쑤였다. 여성은 그 존재 자체가 소외인이 아니라, 실상이 그러하든 아니든 사회적으로 소외된 인물이기 때문에 문학작품 안에서 소외된 인물로 그려진 것이다. 그런데 이 책은 ‘여성’에 대해 면밀하게 그리고 섬세하게 주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실세계 혹은 문학작품 안에서 간과되거나 도태될 인물 군상을 따뜻하고도 냉철한 시선으로 통찰해내고 있다. 즉, 남성에 비하여 사회적 소외인이었던 ‘여성’, 가정 내에서 소외인이었던 ‘계모’의 형상을 분석해내었고, 문학 텍스트 안에서 서사적 편폭을 확대시키지만 항상 주동인물에게 대미를 내주는 ‘반동인물’을 논의의 중심으로 끌어내었다.

이와 같이 ‘여성’, ‘계모’, ‘반동인물’을 통한 고전소설 읽기는 새로운 작품 읽기의 방법으로 흥미를 제공한다. 인물 유형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인간의 모습과 사회상을 조감할 수 있게 해준다. 특히 저자가 언급했듯이 여성의 심리적 대리물로서 소설 속의 여성을 조우하는 일, 그와 같은 여성 인물을 발굴하여 생동감을 불어넣는 일은 전공자에게는 연구 방법론의 다양성을 보여줄 것이고, 비전공자에게는 고전소설에 접근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 2.

이 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제1부 여성 영웅소설과 여성인물.

제2부 계모 등장 소설과 여성인물.

제3부 대하소설과 여성반동인물.

우선, 텍스트 선정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편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책은 여성 영웅소설, 계모형 가정소설, 대하소설과 같은 고전소설의 제 유형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텍스트 해석학에서 텍스트의 선정은 연구 결과를 평가할 때 영향을 줄 만큼 중요하다. 여성 영웅소설 텍스트로는 「정수정전」, 「홍계월전」, 「옥주호연」, 「이현경전」, 「방한림전」을 선정했고, 계모형 가정소설 작품으로는 「장화홍련전」, 「김인향전」, 「황월선전」, 「어룡전」, 「김취경전」, 「조생원전」, 「정을선전」, 「난학몽」, 「효열지」를 다루었다. 이는 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대부분의 여성 영웅소설과 계모형 가정소설을 두루 포괄한 것이다.

그런데, 여성 영웅소설 가운데 「이학사전」의 경우, 여타 여성 영웅소설과 달리 남성 영웅소설보다 이른 시기에 창작된 소설일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이 책에서도 「이학사전」이 부부갈등과 고부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드러나는 등 여타 여성 영웅소설과 다른 면모가 존재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특징이 이른 시기 여성 영웅소설의 면모라면, 다시 말해 「이학사전」의 창작시기가 소급된다면, 여타 여성 영웅소설과 「이학사전」은 함께 논의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 생각한다. 또한 이른 시기의 여성 영웅소설로서의 면모와 여화위남의 의미도 수정될 수도 있다. 「이학사전」의 창작시기에 대한 논의는 지속될 것이기에 덧붙여 둔다.

한편, 대하소설 텍스트로 선정한 작품은 대하소설의 초기 작품인 「소

현성록』에서 전성기 작품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이씨세대록』과 『윤하정삼문취록』 그리고 변모·쇠퇴기에 작품이라 할 수 있는 『천수석』에 이른다. 2부에서 다룬 『화산선계록』(80권 80책)과 3부의 『이씨세대록』(26권 26책), 『소현성록』(4권 4책), 『윤하정삼문취록』(105권 105책), 『천수석』(9권 9책)은 그 작품 분량도 적지 않다. 아울러 이들 작품은 각각 『쌍천기봉』-『이씨세대록』, 『소현성록』-『소씨삼대록』, 『명주보월빙』-『윤하정삼문취록』, 『천수석』-『화산선계록』과 같이 전·후편 연작관계에 있는 대하소설들이다. 저자의 방대한 독서량과 고전소설사를 고려한 텍스트 선정과 텍스트의 적절한 안배가 돋보인다.

이제 체제를 따라 살펴보기로 한다. 제1부는 여성 영웅소설에 대한 두 편의 논문으로 되어 있다. 두 편에 대한 논고 중 한 편은 여성 영웅소설에서 여성인물이 행하는 여화위남의 의미를 구명하고, 다른 한 편은 『방한립전』에서 여성인물 방관주와 영혜빙을 대상으로 이들의 행위 양태와 동성결혼의 문제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

이 책은 여성 영웅소설에서 여화위남은 여성이라는 자신의 현실적 처지를 인식한 남성선망의 표현이며, 여성들이 남성으로서 지향하는 것은 가문의 복수, 효와 입신양명과 같은 유교적 이데올로기를 구현하는 일이라 파악하였다. 여성인물들이 행하는 여화위남은 여성의식의 진보차원에서가 아니라 통속소설적 요소일 뿐이라는 것이다. 또한 『방한립전』에서 보이는 동성혼 삽화 역시 통속적 흥미소의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방한립전』 주인공인 방관주는 여성임을 거부하고 남성을 지향하며 가부장제적 질서를 온전히 구현하는 역할을 할 뿐, 당대의 억압적 현실을 투철히 인식하는 여성인물이 아니며 오히려 여성현실인식을 직시하고 실천하는 인물은 영혜빙이라 하였다. 논의를 따르면, 결국 여성 영웅소설 속의 ‘여화위남’과 ‘동성혼’은 통속적 요소일 뿐이라는 결론에 이른다.

여성 영웅소설에서 여성인물에 대해 진전된 여성의식을 지녔다고 강조하는 기존 논의에 회의를 품는 저자의 문제의식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여성영웅이라 일컬어지는 인물들이 보이는 행위와 표현과 방법에 있어 다를 뿐 유교적 이데올로기를 구현하고 있으며, 삽화는 통속적 요소에 지나지 않다는 평가가 적실한가는 학자에 따라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이를 테면, 영혜빙이 남편의 절제를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여성적 삶에 불만을 토로하는 부분은 전체 작품에서 미미하게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영혜빙을 불합리한 처지를 인식하고 실천하는 여성의식이 드러난 인물이라고 평가한 반면, 세상 부녀의 녹녹한 소임을 가소롭게 여긴다는 방관주에 대해서는 ‘무의식적’으로 남장을 하고 커서는 그것이 ‘습관화’된 인물이라고 파악하였다. 의복은 사람의 행동 양식을 규정한다. 여복이 아닌 남복을 선택한 것은 이미 남성으로서의 삶을 선택하고자 한 방관주의 심리적 태도와 의지가 드러난 것이라 할 수 있다. 영혜빙의 언표에 대해서는 과도한 의미를 부여한 반면, 방관주의 심리적 태도와 행위에 대해 지나치게 축소해 평가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일이다.

제2부 논의의 핵심은 ‘계모’라는 여성에 있다. 계모형 가정소설과 대하소설 『화산선계록』의 계모 형상을 비교 고찰하고 있다. 계모형 가정소설은 가정 비극의 가장 큰 책임을 가장에게 돌림으로써 역설적으로 가장의 중요성을 설파하고 있다고 했는데, ‘계모’라는 특정 인물에 주목하여 그 인물을 둘러싼 이해관계를 파악한 것이 이 책의 성과라 할 수 있다. 특히 계모형 소설에서 계모와 대립하는 선의 존재가 미미함을 분석해 낸 점, 효과 같은 이념의 승리가 없다는 점, 계모가 개과하는 계기는 현실적 이해관계에 기인한다는 점은 계모형 가정소설을 적실하게 파악한 결론이다.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가정 내 계모의 위상과 전처

자식으로 구성된 가족들과의 관계망을 현실적 이해관계의 요소로 분석해 낸 것은 계모형 가정소설의 다각적인 갈등을 드러낸 것이다.

한편, 대하소설에서 보이는 계모의 양상을 분석하고 있다. 『화산선계록』은 ‘계모’가 형상화되었지만 혈연을 중시하는 계모형 가정소설과 달리 의리가 중시되고 있음을 분석해내었다. 이는 같은 처지와 행위를 보이는 여성인물일지라도 서술자의 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대하소설과 계모형 가정소설이라는 소설 유형에 따라 달리 나타나고 있음을 밝힌 것이다. 이러한 성과는 대하소설과 여타 유형들과의 소통과 교섭에 대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현재의 학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인물 연구가 고전소설의 유형적 차이점과 공통점을 탐색하는 방법론으로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끝으로 제3부는 대하소설의 여성인물에 대한 고찰로, 저자가 비중있게 다루고 있는 부분이다. 고전소설의 입체적 분석은 다양한 인물들의 형상을 보여줄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대하소설은 복수주인공으로 이루어진만큼 주동인물만으로도 논의할 거리가 넘쳐난다. 그런데 이 책은 주동인물이 아닌 대하소설의 반동인물에 주목하고 있다. 각 개별 작품에서 반동인물을 추출하고 이를 통계표로 작성함으로써 반동인물과 관련된 서사를 계량화하고 있다. 인문학에서 계량화가 자칫 단순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위험이 있을 수 있지만, 반동인물의 서사 분량에 대한 양적 데이터를 만들어 반동 인물의 형상화 방식과 주제의미까지 탐색할 수 있었던 것은 꼼꼼하게 작품을 보는 저자의 태도와 저자의 분명한 목표 의식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다.

더욱이 전·후편에 다르게 나타나는 반동 인물의 행동 양상을 밝힘으로써 소설사의 흐름에 따른 변화의 의미까지 파악하고 있다. 예컨대, “『소현성록』과 『소씨삼대록』의 여성반동인물이 애정에 대한 관심이 지

대하다는 점, 반동행위가 극단적인 데까지 나아가지 않는다는 점, 반동적 행위 인물이 주동인물 가문에 속한다는 점” 등은 공통점이나 “『소씨삼대록』이 『소헌성록』에 비해 반동인물의 비중과 활동범위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 두 작품 모두 애정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지만 『소씨삼대록』에는 중통의식이 강화되어 있다는 점”을 차이점으로 밝히고 있다. 또한 『유하정삼문취록』에 대한 논의에서, “전편인 『명주보월빙』은 중통 갈등이 적지 않게 형상화되면서 장자의 중요성이 강조된 반면, 『유하정삼문취록』은 장자 중심의 사고가 약화된 대신 과애나 질시의 문제를 드러냄으로써 여성 현실을 더욱 집중적으로 제기한다.”와 같이 전·후편에 나타나는 반동 인물의 행위 양상의 차이점과 의미를 변별한 것이다. 개별 작품의 결과를 매거할 수 없으나, 이 같은 연구 결과는 저자가 연작관계에 놓인 전·후편을 꼼꼼하게 읽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않은 해석이다. 텍스트를 읽는 데에는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방대한 독서량을 소화한 저자의 부지런함과 고전소설 대한 열정의 결과라 하겠다.

3부의 미덕은 여성반동인물들이 갖는 섬세한 욕망을 꼼꼼하게 고찰하고 욕망의 다양한 층위와 면모를 확연하게 보여준다는 데 있다. 네 작품을 통괄해보면, 여성반동인물의 반동 행위의 동기인 동시에 반동인물의 욕망은 1) 성 2) 애정 3) 자식 과애 4) 열등감 5) 질시 6) 권력 7) 투기로 정리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네 작품은 흡사한 방법론이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어떤 작품을 텍스트로 하더라도 이와 유사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것은 각 작품에 대한 논고를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이를 한 책으로 갈무리 한 데 원인이 있다. 하지만, 작품에 드러나는 욕망들과 의미의 유형화가 불가능한지 궁금하다.

개별 작품의 특징이 갖는 의미를 분석한 다음 단계는 유형화의 작업이다. 물론 지난한 작업일 수 있기에 서평자의 무리한 바람일지 모른다.

그러나 저자의 열정을 토대로 이에 대한 논의가 시도됐어야 한다. 덧붙여, 여성반동행위 양상으로써의 ‘애정’과 ‘투기’의 변별의 기준이 다소 혼재되어 있다. 예컨대, 『소현성록』의 화씨와 여씨의 반동행위의 동기를 ‘투기’라고 분석하고도 결론부분에서는, “『소현성록』과 『소씨삼대록』은 모두 반동인물이 애정 문제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두고 있다고 파악하였다. ‘애정’나 ‘투기’는 모두 한 남성 인물에 대한 여러 명의 처첩, 다처라는 관계에서 도출되는 양상이다. 공통된 환경에서 뿌리를 둔 두 행위는 그 구분이 모호해질 수도 있다. 애정과 투기를 구분한 만큼 그 행위의 기준을 변별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 3.

이 책에 필자가 들인 시간과 노고를 알고 있기 때문에 선불리 무엇을 말하는 것이 트집을 잡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함께 공부하는 연구자로서 갖는 아쉬움에 다음을 덧붙인다.

첫째, 저자의 고전소설에 대한 독서량을 가늠하면, 조만간에 개별 작품론에 드러난 여성인물이 아닌 고전소설 전반에 나타난 여성인물에 대한 일반론을 개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삶의 편폭 속에서 다양한 국면을 보여주는 고전소설 속의 여성들을 발굴하고 그들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이길 바란다. 저자의 말대로 전기소설이나 판소리계 소설 등에서도 주목할 만한 여성인물에 대한 연구를 차후에 기약하고 있는 만큼 현재의 작업들과 차후의 연구들이 포석이 되어 고전소설 속 여성인물의 일반론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둘째, 여성 영웅소설의 여성에 대한 논의가 진전된 만큼 이와 연계하여 대하소설에서의 여성영웅 형상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었으면 한다.



그간 논의들은 여성 영웅소설에서의 여성영웅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대하소설 내에서도 여성영웅이 엄연히 존재한다. 『화산선계록』 계모형 가정소설과 『화선선계록』에서의 계모가 변별되듯이, 대하소설의 여성영웅과 여성 영웅소설의 여성영웅의 행위와 지향이 어떻게 같고 다른지 변별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자 또한 이 책 출간 이후 최근에 『화산선계록』을 중심으로 영웅적 여성인물에 대한 논의를 시도하고 있다. 이에 대한 연구를 진척시킨다면, 여성 영웅소설의 발생을 남성 영웅소설의 통속화 또는 그 변주라는 논의에서 벗어나 또 다른 여성 영웅소설 발생 경로를 추적할 수 있으리라 본다.

셋째, 여성영웅의 ‘여화위남’, ‘동성혼’, 계모형 소설에서의 ‘계모와 전처 자식 간의 갈등과 해결 방식’을 모두 통속적인 요소라고 평가하고 있다. 다양한 유형에서 나타나는 여성인물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고 그것을 묶은 저서이기 때문이겠지만, 각 유형에서 말하고 있는 통속적 요소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 통속성의 외연과 내연이 확대되고 심화되면서 ‘17세기에서의 통속성’, ‘18세기에서의 통속성’과 같이 분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책에서 말하는 통속성과 소설사적 맥락에서의 통속성에 대한 고구가 필요할 것이라 본다.

이상에서 저자의 연구에 대한 약간의 사족을 붙였다. 이러한 내용은 고전소설을 연구자들이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일 것이다. 이 책은 모두 챙겨 언급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미덕을 지니고 있다. 책 전체에 필자의 순수한 열정과 고민이 곳곳에 넘쳐난다. 서평 과정에서 필자의 의도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거나 소홀한 부분이 있다면, 이는 저자와 서평자 서로의 역할과 책임이 달랐던 이유일 것이다. 다시 한 번 이 책의 출간으로 고전소설에서의 여성 연구에 대한 학계의 관심이 제고되기를 바란다.